

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. 28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완국, 사무관 이양구, 주무관 임태정 • ☎ (044) 201-4018, 4019
	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영호, 사무관 김지현 • ☎ (044) 200-5150, 575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화물운송 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'20.1.28(화)) >

- ◆ 무리한 운임 인상에…해운 일자리 5400개 사라질 판
 - 부산항 환적화물 61만 TEU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
 - 글로벌 선사들 “한국 탈출 검토”…영세 운송사 줄도산 부를 수도

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·과적·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('18.4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)되었으며,
 - 화주·운수사업자·화물차주·공익 대표위원 및 특별위원(국토부·해수부·산업부)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.
- 부산항 환적화물*과 관련하여, 현재 약 500여 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1,157만TEU의 환적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,
 - * 부산항이 기·종점이 아닌 컨테이너 운송 과정 중,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선박간 이·선적하여 운송하는 연계 운송화물(예시 : 중국 → 부산항 → 미국)
 -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선박 출항시간에 운송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작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

지난 수년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이 필요하였습니다.

- **환적화물 물량 유지와**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, 항만공사, 선사, 운수사,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TF팀 결성을 추진 중이며 터미널 부두운영 효율화, 부두간 육로운송 최소화, 각종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,
- 앞으로 선사, 화물차주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(☎ 044-201-40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